

부끄러움[吝]에 대하여

—『역경』을 중심으로—

조 우 진(曹芋珍)

(전남대학교 철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학술연구교수/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겸임연구원)

<目 次>

1. 서론
2. 린(吝)의 의미
 - 1) 린(吝)의 어원
 - 2) 린(吝)과 회(悔)
3. 『역경』의 부끄러움[吝]
4. 결론

<국문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역경』에 나타나는 린(吝)자의 쓰임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부끄러움이 인간의 삶의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피는 데 있다. 『역경』에는 린(吝)자가 20회 표현되어 있다. 린자는 ‘부끄러움’으로 해석 가능하며, 괘상에서의 효의 자리, 효와 효의 상호관계, 효의 자체적인 특성 혹은 상황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역경』에서 ‘부

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사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학역(學易)의 측면에서 이해할 때 부끄러운 도덕 감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즉 부끄러움은 자신에게 처한 조건이 좋거나 나쁜 것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지만, 부끄러운 기미(幾微)를 살펴 바르게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역경』에서 부끄러움은 주로 길(吉)과 무구(无咎)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다. 모든 상황이나 사태는 부끄러움의 대상이며, 결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부끄러운[吝] 감정은 어떤 사태에 대한 잘못[凶]을 반성하는 뉘우침[悔]으로 발전하여 허물이 없는 상태[无咎]로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좋은 방향[吉]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바로 흉(凶) ⇒ 린(吝) ⇒ 회(悔) ⇒ 무구(无咎) ⇒ 길(吉)로 나아가는 구조이다.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부끄러운 감정은 한 개인의 부끄러운 감정을 넘어 현대 사회의 부끄러움으로 확장될 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이끌어 낼 것이다.

주제어: 린(吝), 『역경』, 부끄러움, 감정, 기미(幾微), 길(吉), 무구(无咎).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역경』에 나타나는 린(吝)자의 쓰임을 체계

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부끄러움이 인간의 삶의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피는 데 있다. 길흉회린 가운데 린(吝)자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¹⁾되는 복합적인 감정이지만, 필자는 잘못에 대한 뉘우침[悔]을 촉발시키는 부끄러움[쵸]의 감정으로 풀이한다. 부끄러움은 뉘우침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 감정의 출발점이다.

순수 우리말인 부끄러움은 일반적으로 수치(羞恥)²⁾와 혼용되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 또는 분류되는 감정이다. 수치스러움은 들어 내놓기 싫은 자신의 잘못이 밖으로 드러날 때 생기는 감정이다. 하지만 『역경』의 부끄러움[쵸]은 수치스러움의 의미와 연결했을 때 결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역경』에서 수(羞)자는 비괘(否卦)의 육삼과 항괘(恒卦)³⁾의 구삼에서 두 번 등장하지만, 치(恥)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수(羞)자는 양(羊)⁴⁾자

1) 린(吝)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다음과 같은 학자들은 모든 린(吝)자를 일관되게 해석한다. 정이(程頤)의 『역전』과 소식(蘇軾)의 『동파역전』과 주희(朱熹)의 『주역본의』와 내지덕(來知德)의 『역경래주도해』에서는 모든 린(吝)자가 ‘부끄럽다[羞吝]’는 의미로 사용된다. 고형(高亨)은 『주역고경금주』에서 ‘어렵다[難]’는 뜻으로 사용했고, 공영달(孔穎達)은 『주역정의』에서 ‘인색하다[吝嗇]’는 의미로 풀이했다. 황수기(黃壽祺)와 장선문(張善文)은 『주역역주』에서 ‘한스럽고 안타깝다[慊惜]’는 뜻으로 사용했다.

2) 공자는 “정치로서 인도하고 형벌로써 면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논어』 「위정」)]”고 하여 도덕적 부끄러움[恥]을 말하고, 맹자 또한 사단 가운데 “부끄럽고 싫어하는 마음 [羞惡之心. (『맹자』 「고자상」)]”을 말하여 도덕적 부끄러움[羞]를 드러내었다. 공자와 맹자는 수치(羞恥)를 도덕적 부끄러움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주역』 비괘(否卦) 육삼(六三), “包羞.” 『주역』 항괘(恒卦) 구삼(九三), “不恒其德, 或承之羞, 貞吝.”

4) 양(羊)은 상서로운 동물로 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상서로운 상(祥)자는 보일 시(示)와 양이 합쳐진 것인데, 시(示)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 신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상서로운 것은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신에게 보이는 것이다. 또한 아름다울 미(美)자는 양(羊)자 아래

아래에 축(丑)자를 결합한 것인데, 축(丑)자는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잡는 모양을 나타낸다. 즉 『갑골문』에서 수(羞)자는 양(羊)을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받치는 모습[丑]을 형상한 글자이다. 『설문해자』에서도 수(羞)자는 “음식을 진헌한다[進獻也].”고 했다. 그러므로 수(羞)⁵⁾는 신에게 좋은 양[美]을 바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인간의 부족함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제사를 지낼 때 외부로부터 생기는 부끄러움이다. 치(恥)자는 『설문해자』에서 “욕보이다[辱].”고 풀이했는데 치(恥)는 이(耳)와 심(心)이 합쳐진 형성문자이다. 즉 이것은 남들이 말하는 내 잘못을 듣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치(恥)의 의미는 외적으로 귀를 열고 내적으로 마음을 열어 소통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결론적으로 글자의 의미에서 보면, 외면의 부끄러움인 수(羞)과 내면의 부끄러움인 치(恥)를 합한 것이 바로 름(吝)자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부끄러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철학과 문학에서 부끄

큰 대(大)를 썼다. 『설문해자』에 “양이 큰 것이 곧 미이다.[羊大則美]”라고 했다. 즉 신에게 가장 튼실한 양을 골라 신에 바치는 행위로부터 아름다운 의미의 의미가 형성되었다. 의(義)자도 양(羊)자와 수(手)와 과(戈)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이 글자는 양의 털을 쓰고 창을 손에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제사장의 의로운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羊)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사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許慎撰, 段玉載注, 『說文解字』(北京: 中國書店, 2010), 538쪽 참조.

- 5) 나진옥은 『증정은허서계고석(增訂殷墟書契考釋)』에서 “자부가又一인 것은 羊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진헌의 의미이다.”라고 하였고, 이효정은 『갑골문집석』에서 “허신은 자부를 丑이라고 했는데, 손(手)의 의미를 표시한다. 자부 丑과 자부 又는 같은 의미이다.”라고 하여 『설문해자』와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다. 羞자의 본래 의미는 진헌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포함한 수치와 수욕(羞辱) 등은 가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영찬·최남규·황갑연·박진용 지음, 『동양철학과 문자학』(서울: 아카넷, 2003), 296쪽.

러운 감정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철학 분야에서는 대체로 셸러가 말하는 부끄러움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박찬영은 셸러의 입장에서 부끄러운 감정이란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의 삶이 초월성과 유한성의 사이에서 긴장하고 대립하는 표현이라고 보았다.⁶⁾ 조정옥은 유가의 수오지심과 셸러의 부끄러움의 이론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적 수줍음의 근원을 해명했다.⁷⁾ 이선은 부끄러움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서양철학 전반에 걸쳐 중요시되었던 사회 규제적 부끄러움, 셸러와 사르트르가 말하는 개별자의 자유로운 자기 형성을 가능케 하는 촉매로서 부끄러움, 도덕적 행위의 구체적인 추동력이 될 수 있는 공자의 우주적 부끄러움으로 보았다.⁸⁾ 정용환은 맹자의 도덕론에 대해 도덕 판단과 감성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의로움의 시작점을 부끄러움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 부끄러움은 메타 지향적 의식 활동인 뜻(志)을 확립함으로써 도덕적 부끄러움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⁹⁾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부끄러움의 개념과 표현 등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철학적인 부분에 한정시킨다.

『역경』과 관련된 부끄러움[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¹⁰⁾ 그

6) 박찬영, 「부끄러움에 대하여」(『教育論叢』 vol 49, 公州教育大學校, 2012) 199쪽 참조.

7) 조정옥, 「셸러의 부끄러움 이론을 통해 본 한국인의 수줍음」(『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19, 한국현상학회, 1996) 307쪽 참조.

8) 이선, 「부끄러움의 도덕적 기능」(『哲學論叢』 vol 55, 새한철학회, 2009) 294~295 참조.

9) 정용환, 「맹자의 도덕 감정론에서 부끄러움의 의미」(『哲學論叢』 vol 66, 새한철학회, 2011) 160~161 참조.

10) 전소중(田小中)은 『역경』의 '이왕린(以往吝)'에 '왕(往)'자를 분석하면서 '이왕린(以往吝)'의 '이(以)'자가 연문임을 밝혔다. 田小中, 「『以往吝』

런데 『역경』의 린(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왕위(王偉)이다. 그는 『역경』의 효사에 나타나는 모든 린(吝)자의 의미를 하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문장의 의미와 연관시켜 다양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린(吝)자의 의미를 6가지로 분류하여 행난(行難), 곤란(困難), 수치(羞恥), 인색(吝嗇), 감석(憾惜)으로 해석했다.¹¹⁾ 그러나 필자는

衍文考」(重慶, 重慶文理學院, 2006). 호광정(胡光庭)은 ‘견(見)자가 부사(副詞)라는 설과 조동사(助動詞)라는 설이 있는데, 『역경』의 ‘견린(見吝)에 나타는 ‘견(見)자를 통해서 원시한어에서 조동사로 쓰인다고 보았다. 胡光庭, 「從《周易》“見吝”原始漢語的被動助動詞“見”」(長沙, 湖南師範大學院, 2009). 하지만 이 논문들은 ‘린(吝)자를 직접 분석한 것이 아니라, 『역경』의 특성상 문자학적인 측면에서 ‘린(吝)자를 배경으로 ‘이(以)자나 ‘견(見)자를 분석한 것이다.

- 11) 王偉, 「淺析“吝”字在《易經》爻辭中的釋義」(聊城大學古籍整理研究所, 2004) 40~44쪽 참조. 본 논문에서 왕위는 효사에서 20번 등장하는 “린(吝)”의 의미를 크게 6가지로 해석했는데,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번호	의미 (횟수)	괘효	효사
1	行難(4회)	屯卦 六三	即鹿无虞, 惟入于林中, 君子幾, 不如舍, 往吝.
		同人卦 六二	同人于宗, 吝.
		困卦 九四	來徐徐, 困于金車, 吝, 有終.
		未濟卦 初六	初六, 濡其尾, 吝.
2	困難(7회)	蒙卦 初六	發蒙, 利用刑人, 用說桎梏, 以往吝.
		泰卦 上六	城復于隍, 勿用師, 自邑告命, 貞吝.
		蠱卦 六四	裕父之蠱, 往見吝.
		噬嗑卦 六三	噬腊肉, 遇毒, 小吝, 无咎.
		恒卦 九三	不恒其德, 或承之羞, 貞吝.
		家人卦 九三	家人嗃嗃, 悔厲, 吉, 婦子嘻嘻, 終吝.
		解卦 六三	負且乘, 致寇至, 貞吝.
3	羞恥(5회)	蒙卦 六四	困蒙, 吝.
		觀卦 初六	童觀, 小人无咎, 君子吝.
		咸卦 九三	咸其股, 執其隨, 往吝.

린(吝)자에 대한 이러한 분류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중의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 부끄러움의 뜻으로 해석한다. 먼저 린(吝)자의 어원과 기존 연구자들이 린(吝)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자.

2. 린(吝)의 의미

1) 린(吝)의 어원

갑골문은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문양을 문신했다는 의미의 문(文)자 아래에 입이라는 구(口)자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린(吝)은 형부인 구(口)자와 성부인 문(文)자가 린(吝)으로 전음된 형성문자이다. 그리고 문(文)자는 사람의 가슴에 다양한 문신이 새겨진 모양을 본뜬 것으로 꾸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꾸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대 사람들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린(吝)자는 문(文)자에 구(口)자가 결합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 입으로만 꾸미고 실제로

		晉卦 上九	晉其角，維用伐邑，厲吉，无咎，貞吝.
		巽卦 九三	頻巽，吝.
4	羞辱(1회)	大過卦 九四	棟隆，吉，有它，吝.
5	吝嗇(1회)	賁卦 六五	賁于丘園，束帛戔戔，吝，終吉.
6	憾惜(2회)	姤卦 上九	姤其角，吝，无咎.
		萃卦 六三	萃如嗟如，无攸利，往无咎，小吝.

행함에 있어서는 머뭇거린다는 의미에서 ‘인색하다’와 ‘아낀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이것은 『상서』 「중외지고」편에서 나오는 “허물을 고침에 인색하지 않았다[改過不吝].”는 것과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주공과 같은 뛰어난 재능이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如有周公之才之美, 使驕且吝, 其餘不足觀也已.]”는 것에서 나오는 린(吝)의 의미이다. 『설문해자』에서는 “린(吝)은 한스럽고 아쉬움이다. 뜻은 입 구(口)에서 소리는 글월문(文)에서 취하였다[吝恨惜也, 從口聲文].”라고 했다. 고대에 장례를 치를 때는 죽은 사람의 시신에 무늬[文]을 새겨 경건함을 나타냈으며, 갑골문을 볼 때 구(口)자는 입이라기보다는 시신을 매장할 구덩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린(吝)은 죽은 사람의 몸에 무늬를 그려 구덩이에 매장한다는 뜻으로 보는데, 이러한 일은 안타깝고 애석한 상황이다. 『백서주역』에서 린(吝)자는 20곳 가운데 19곳이 린(閼)으로 쓰여 있는데, 본래 새 이름[鳥名]이다. 린(閼)자는 가차자로 린(吝)이며, 린(閼)과 린(吝)은 옛날 음이 같다. 그런데 준괘(屯卦) 육삼(六三) 한 곳에서만 흰(𠂔)자 아래에 문(文)가 붙은 린으로 되어 있으니 린(吝)의 옛 글자로 보인다. 글자는 곡(哭)을 따르고 소리는 문(文)을 따르니 또한 한탄과 아쉬움의 뜻이 합쳐진 것이다.¹²⁾ 이러한 고대의 린(吝)자는 공자가 「계사전」에서 회(悔)자와 함께 사용하면서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12) 등구백 지음, 황준연 엮음, 『역주백서주역교석』(서울: 학고방, 2015), 423쪽.

2) 린(吝)과 회(悔)

린(吝)이라는 글자는 효사에서만 20번 등장하는 판단사 중에 하나인데, 공자는 「계사전」에서 린(吝)자를 설명할 때 항상 회(悔)자와 겸해서 말한다.¹³⁾ 「계사전」에 등장하는 린과 회의 의미는 길과 흉처럼 서로 서로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계사전」에서 “회와 린은 근심과 걱정을 형상한다.[悔吝者，憂虞之象也]”고 정의했는데, 상반된 개념은 아니다. 당나라 이정조(李鼎祚)의 『주역집해』에서 우번(虞翻)은 “회는 근심[憂]을 형상하고, 린은 걱정[虞]을 형상한다.”¹⁴⁾고 하여 회와 린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징(吳澄, 1249~1333)은 “우(憂)는 안에서 근심하는 것이고, 우(虞)는 밖에서 염려하는 것이다.”¹⁵⁾고 하여 내면과 외면의 문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회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근심이고, 린은 외부로 생기는 염려이다. 그러므로 린과 회는 본래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송대 이후로부터 여러 학자들은 회와 린의 개념을 상반된 의미로 사용하면서 각각의 범주로 경계를 지었다. 예를 들면 장식(張栻, 1133~1180)은 “회는 잘못을 고치는 뜻이 있으니

13) 회와 린은 「계사전」에서 모두 7번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悔吝者憂虞之象也.”, “悔吝者言乎其小疵也.”, “憂悔吝者存乎介.”, “吉凶悔吝者生乎動者也.”, “是故吉凶生而悔吝著也.”, “遠近相取而悔吝生.”, “悔且吝.”

14) 李鼎祚 撰, 『周易集解』 권13, 『문연각사고전서』 vol 7(臺灣: 商務印書館, 1988), 810쪽. “虞翻曰: 悔則象憂, 吝則象虞也.”

15) 吳澄 撰, 『易纂言』 권7, 『문연각사고전서』 vol 22(臺灣: 商務印書館, 1988), 544쪽. “憂謂憂患於中, 虞謂虞度於外.”

길함에 이르러 회가 드러나고, 린은 잘못을 꾸미는 뜻이 있으니 흉함에 이르러 린이 드러난다.”¹⁶⁾고 하여 어떤 상황에 대한 잘못을 뒤우쳐 고치는 것을 회로,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꾸미는 것을 린으로 보았다. 주희(朱熹, 1130~1200)는 “회와 린은 길흉 사이에 존재하는데, 회는 흉에서 길로 가는 것이고, 린은 길에서 흉으로 가는 것이다.”¹⁷⁾고 하여 길과 흉으로 나아가는 기미로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회는 악함에서 선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린은 선함에서 악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¹⁸⁾고 하여 선악의 문제와 연관시켜 이해했다. 채청(蔡清, 1453~1508)은 “회는 내가 스스로 허물하는 것이고, 린은 남이 나를 허물하는 것이다.”¹⁹⁾고 하여 허물하는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 설명했다. 왕우박(王又樸, 1681~1760)은 “지나쳐서 허물이 있는 것을 회라고 하고, 미치지 못해서 허물이 있는 것을 린이라고 한다.”²⁰⁾고 하여 회와 린을 과(過)와 불급(不及)의 관계로 보았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잘못을 고치는 것을 회라고 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것을 린이라 하니 회와 린은 역학가의 근본취지인 것

16) 張栻 撰, 『南軒易說』 권2, 『문연각사고전서』 vol 13(臺灣: 商務印書館, 1988), 648쪽. “悔者有改過之意, 至於吉則悔之著也. 吝者有文過之意, 至於凶則吝之著也.”

17) 朱熹, 『朱子語類』 권74, 『朱子全書』 제16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2514쪽. “悔吝在吉凶之間, 悔是自凶而趨吉, 吝是自吉而之凶.”

18) 朱熹, 『朱子語類』 권74, 『朱子全書』 제16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2510쪽. “悔者將自惡而入善, 吝者將自善而入惡.”

19) 蔡清 撰, 『易經蒙引』 권9하, 『문연각사고전서』 vol 29(臺灣: 商務印書館, 1988), 582쪽. “悔者我之自尤也, 吝者人之我尤也.”

20) 王又樸 撰, 『易翼述信』 권2, 『문연각사고전서』 vol 50(臺灣: 商務印書館, 1988), 567쪽. “過而有咎之謂悔, 不及而有咎之謂吝.”

이다.”²¹⁾고 하여 잘못에 대한 반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이해했다.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은 “흉으로부터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이다. 회는 마음에 뉘우치는 것이 있어서 반드시 고치고 자 하는 것이다. 길로부터 흉으로 나아가는 것이 린이다. 린은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있지만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²²⁾고 하여 회와 린을 뉘우침과 부끄러움으로 풀이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송대 이후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회와 린을 길흉, 강유, 선악, 변화처럼 상반된 개념으로 풀이했다. 그런데 왕부지는 회와 린을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모두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회는 내가 행해야 할 기미이고, 린은 내가 그쳐야 할 때이다.……기미는 거스를 수 없고, 때는 어길 수 없으니 항상 만드는 것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다.……회는 없을 수 없는데 회가 없으면 인이 회복되지 않고, 린은 없을 수 없는데 린이 없으면 뜻이 일정하지 않다.²³⁾

왕부지는 회와 린을 행할 때와 그쳐야 할 때로 구분하여 도덕성의 의미로 이해했다. 회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한 기미를 살펴서 인(仁)을 회복하는 것이고, 린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그쳐야 할 때를 알아 뜻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다.

21) 다산 정약용, 방인·장정옥 옮김, 『역주주역사전』 1책, (서울: 소명출판, 2007), 183쪽. “改過曰悔, 不改過曰吝. 悔吝者, 易家之大義也.”

2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X VI(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5), 139쪽. “自凶而趨吉則悔. 悔者, 心有所悟而必欲改也. 自吉而向凶則吝. 吝者, 心有所羞而不欲爲也.”

23) 王夫之, 『周易外傳』 권6, 『船山全書』 1책(長沙: 嶽麓書院, 1988), 1031~1032쪽. “悔者吾行之幾也, 吝者吾止之時也.……幾不可逆, 時不可違, 恒有所奉而勝之.……不可无悔也, 无悔則仁不復; 不可无吝也, 无吝則志不恒.”

이상과 같이 린은 회와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는 주로 뉘우침이나 후회의 의미로 쓰이는데 린은 여러 가지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뉘우침이나 후회의 의미와 연관시켜볼 때 린은 부끄러움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역경』에서 부끄러움[吝]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자.

3. 『역경』의 부끄러움[吝]

『역경』에서 린(吝)자는 효사에서만 모두 20번 등장하는데, 상경에서 10번과 하경에서 10번 나타난다. 그 가운데 몽괘(蒙卦)만 초효와 사효에서 두 번 나타난다. 린(吝)자는 초효부터 상효까지 모두 보이는데, 초효 3번, 이효 1번, 삼효 8번, 사효 4번, 오효 1번 상효 3번이다. 린(吝)자는 주로 음효(陰爻)의 자리에 양효(陽爻)가 왔거나 양효의 자리에 음효가 왔을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중(中)의 자리에 있지 않거나, 지나치게 강(剛)하거나, 과단성이 없는 경우에도 린(吝)자가 쓰인다. 20개의 부끄러움[吝]의 의미를 효의 자리, 효와 효의 상호관계, 효의 자체적인 특성 혹은 상황에 따라 5가지[4개씩]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면 부끄럽다[往吝]”는 것으로 표현되는 린(吝)인데, 준괘(屯卦), 몽괘(蒙卦), 고괘(蠱卦), 함괘(咸卦)가 있다.

준괘 육삼: 사슴을 쫓되 산지기가 없이 오직 숲속으로 들어가니 군자는 기미를 살펴 그만두는 것만 같지 못하다. 가면 부끄러울 것이다.[屯卦 六三: 卽鹿无虞, 惟入于林中, 君子幾, 不如舍, 往吝.]

몽괘 초육: 몽매함을 개발함이니 사람을 형벌하고 쇠사슬을 벗겨줌이 이롭다. 가면 부끄러울 것이다.[蒙卦 初六: 發蒙, 利用刑人, 用說桎梏, 以往吝.]

고괘 육사: 아버지의 폐해를 너그럽게 처리한다.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蠱卦 六四: 裕父之蠱, 往見吝.]

함괘 구삼: 그 넓적다리에서 감동하니 그 따르는 것만 고집한다. 가면 부끄러울 것이다.[咸卦 九三: 咸其股, 執其隨, 往吝.]

여기에서 부끄러움은 그 사태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없이 그냥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그 상황을 확인하고 가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즉 가는 것은 앞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만, 가지 않는 것은 그 문제의 기미를 파악하고 멈추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는다. 멈추는 것은 앞의 문제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은 그치는 도[止道]와 연관성을 갖는다. 간괘(艮卦) 「단전」에서 “그쳐야 할 때 그치고 행해야 할 때 행하여 움직이고 고요함이 그 때를 잃지 않으면 그 도가 빛난다.[時止則止, 時行則行, 動靜不失其時, 其道光明.]”고 했는데 이것은 삶의 구조 속에서 중요한 언표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삶에서 행하거나 그치는 때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이(程頤, 1033~1107)는 “간괘의 의미는 만물을 끝맺고 만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이치가 가장 오묘하니 반드시 이 이치를 깊이 음미해야 한다.”²⁴⁾고 했다. 위 괘의 효사들은 가면 부끄럽다는 조건문을 통해서 그쳐야 할 때를 알아 그쳐야함을 말

24) 程頤·程頤 著, 『二程集』上(北京: 中華書局, 2014), 39쪽. “艮之爲義, 終萬物, 始萬物, 此理最妙, 須玩索這箇理.”

하고 있다. 준괘(屯卦)와 함괘(咸卦)의 삼효는 효의 특성상 지나치게 행동하고 중도를 지키지 못하여 부끄러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침의 도가 필수적이다. 몽괘(蒙卦)와 고괘(蠱卦)는 모두 초효이기 때문에 유약하여 함부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이기적인 고집으로 행동하여 부끄러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한 그치는 도가 요구된다. 지나친 행동이나 이기적인 행동은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지만 그치는 도를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행동하면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알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바르더라도 부끄럽다[貞吝]’²⁵⁾는 것으로 드러나는 린(吝)인데, 태괘(泰卦), 항괘(恒卦), 진괘(晉卦), 해괘(解卦)가 있다.

태괘 육삼: 성이 해자로 돌아가니 군사를 쓰지 말 것이며, 읍으로부터 명을 고할 것이다. 바르더라도 부끄러울 것이다.[泰卦 上六: 城復于隍, 勿用師, 自邑告命, 貞吝.]

항괘 구삼: 그 덕(德)을 오래 갖지 못하니 혹 부끄러움이 생길 것이다. 바르더라도 부끄러울 것이다.[恒卦 九三: 不恒其德, 或承之羞, 貞吝.]

진괘 상구: 그 뿔에 나아감이니 오직 읍을 정벌하는데 사용하면 위태로우

25) 정약용은 “‘吝’이라는 것은 작은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吝’이라 이르는 것이니, 그러므로 『周易』의卦에서도 그 허물을 고치지 않은 것을 ‘吝’이라 이르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예전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 끝내 청산되지 않아, 일을 잘해낼 수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貞吝’(일을 함에 과거의 허물을 고침에 인색하다, 과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일이 순조롭지 않다)’이라 하는 것이다.卦象의 측면에서 본다면, 혹 陰이 陽의 자리에 위치하였거나, 혹 柔(陰)가 剛(陽)을 위에서 올라타고 있거나, 혹은 艮의 혼미함이 예전과 같거나, 혹은 坎의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모두 ‘吝’의 象이 되는 것이다.”고 했다. 다산 정약용 지음, 방인·장정옥 옮김, 『역주주역사전』 1책, (서울: 소명출판, 2007), 178쪽.

나 길하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바르더라도 부끄러울 것이다.[晉卦 上九: 晉其角, 維用伐邑, 厲吉, 无咎, 貞吝.]

해괘 육삼: 지고 가야하는데도 또 타고 가니 도적이 오게 될 것이다. 바르더라도 부끄러울 것이다.[解卦 六三: 負且乘, 致寇至, 貞吝.]

‘정린(貞吝)’에서 린의 의미는 정(貞)²⁶⁾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정자는 본래 점친다[卜]는 의미였는데 『십익』의 작자가 ‘바르다’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다양한 정자의 해석²⁷⁾을 제쳐두고, 정자의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바르다[正]’는 의미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일을 바르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지만, 바르지 않은데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바른 삶을

26) 『설문해자』에 “정은 점에 묻는다. 복으로 되어 있다.[貞, 卜問也. 從卜.]”고 했다. 許慎 撰, 段玉載 注, 『說文解字』(北京: 中國書店, 2010), 472쪽. 김상섭은 “정(貞)은 본래 점에 묻는 뜻이므로 이 글자가 복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경』에서 ‘정길(貞吉)’이라고 한 것은 그 점이 길하다는 것이고, ‘정흉(貞凶)’이라는 것은 그 점이 흉하다는 것이다. ‘정린(貞吝)’이라는 것은 그 점이 어렵다는 것이고, ‘정려(貞厲)’라는 것은 그 점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은 모두 점을 친다는 정(貞)자의 뜻이다. 「문언전」과 「좌전」은 모두 네 가지 덕목[元亨利貞] 가운데 하나로 해석했는데,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이 이에 가려서 『역경』의 본래의 뜻을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高亨 주해, 김상섭 옮김, 『고형의 주역』(서울: 예문서원, 1995), 86~87쪽 참조. 다산은 정(貞)자의 의미를 “① ‘利貞’이라고 할 때의 ‘貞’으로, 이때 ‘貞’은 일(事)이다. ② 옳지 않은 일을 점칠 수 없으므로 일(事)이貞이라 말하는 것이며, 이때貞은 ‘바름(正)’이다. ③ 또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반드시 견실해야 하므로 일을貞이라 하는 것이며, 이때의貞은 ‘견실함’이다.”고 했다. 다산 정약용 지음, 방인·장정욱 옮김, 『역주주역사전』 1책, (서울: 소명출판, 2007), 129쪽.

27) 백은기, 「『이천역전』에 나타난 貞에 관하여」, 『철학』 Vol 47, 한국철학회, 1996; 백은기, 「주자의 『주역』에 나타난 정에 관하여」, 『범한철학』 Vol 34, 범한철학회, 2004; 백은기, 「『주역』에 나타난 원亨利貞(元亨利貞)에 관하여」, 『동양철학』 Vol 39, 한국동양철학회, 2013).

살아갔는데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즉 바름의 행동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경』에서 등장하는 ‘바르더라도 부끄러울 것이다[貞吝]’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역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태괘(泰卦) 상육과 진괘(晉卦) 상구는 모두 상효로 극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의 좋지 못한 상황을 해결할지라도 그 상황에 처한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읊으로부터 명을 알리거나 자신의 읊을 정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바르지만, 그렇게 된 그 상황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다. 항괘(恒卦)와 해괘(解卦)는 삼효로 부중(不中)이기 때문에 나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이 바르더라도 부끄럽다. 즉 자신이 덕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거나 깊어져야 하는데 타는 경우는 사태의 상황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더라도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는 좋거나 나쁜 어떤 상황에 대하여 바르게 행동하더라도 때론 부끄러운 감정이 생긴다. 그러므로 바름이란 인간의 도덕적 삶의 지표이지만, 부끄러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감정이다.

셋째는 앞의 전제 조건이 길하거나 허물이 없는데도 결국에는 부끄러운 경우인데, 관괘(觀卦), 대과괘(大過卦), 가인괘(家人卦), 취괘(萃卦)가 있다.

관괘 초육: 어린아이처럼 보는 것이니 소인은 허물이 없지만 군자는 부끄러울 것이다.[觀卦 初六: 童觀, 小人无咎, 君子吝.]

대과괘 구사: 용마루가 높으니 길하다. 다른 마음을 두면 부끄러울 것이다.[大過卦 九四: 棟隆, 吉, 有它, 吝.]

가인괘 구삼: 가장이 엄정하니 뉘우치고 위태롭지만 길하다. 아내와 자식이 희희낙락하면 끝내 부끄러울 것이다.[家人卦 九三: 家人嗃嗃, 悔厲, 吉, 婦子嘻嘻, 終吝.]

채괘 육삼: 모이려 하다가 울부짖어 이로운 것이 없으니, 가면 허물이 없지만 다소 부끄러울 것이다.[萃卦 六三: 萃如嗟如, 无攸利, 往无咎, 小吝.]

위 괘의 효사는 길(吉)과 무구(无咎)의 상태일지라도 부끄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과괘(大過卦) 구사와 가인괘(家人卦) 구삼은 이미 길함에 처해있다. 하지만 ‘다른데 마음을 둔다’거나 ‘아내와 자식이 희희낙락한다’는 것과 같이 중정(中正)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데 마음을 두지 않거나 아내와 자식이 희희낙락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없다. 여기에서 길함과 흉함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처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역경』의 함의를 확인할 수 있다. 관괘(觀卦) 초육과 채괘(萃卦) 육삼은 중(中)의 자리에 처하지 못하였고 다른 효와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처한 조건에 따라 무구(无咎)의 상태에 도달한다. 하지만 무구(无咎)의 상태일지라도 시중(時中)을 지키지 못하여 다소 부끄러움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자신이 행동할 중정이나 시중을 지키지 못하면 부끄러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넷째는 앞의 상황이 좋지 않아 부끄럽지만 결국 허물이 없거나 길한 경우인데, 서합괘(噬嗑卦), 비괘(賁卦), 구괘(姤卦), 곤괘(困卦)가 있다.

서합괘 육삼: 마른 고기를 씹다가 독을 만났다. 조금 부끄럽지만 허물은 없을 것이다.[噬嗑卦 六三: 噬腊肉, 遇毒, 小吝, 无咎.]

비괘 육오: 언덕과 동산에서 꾸미나 예물이 작다. 부끄럽지만 끝내 길할 것이다.[賁卦 六五: 賁于丘園, 束帛戔戔, 吝, 終吉.]

구괘 상구: 그 뿔을 만났다. 부끄럽지만 허물은 없을 것이다.[姤卦 上九: 姤其角, 吝, 无咎.]

곤괘 구사: 느리게 오는 것은 쇠수레에 곤란을 당했기 때문이다. 부끄럽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困卦 九四: 來徐徐, 困于金車, 吝, 有終.]

위 괘의 효사는 앞의 상황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허물이 없거나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이다. 즉 부끄러운 것은 모두 자신의 자리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합괘(噬嗑卦) 육삼과 구괘(姤卦) 상구는 자신이 ‘독을 만남’과 ‘뿔을 만남’이니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부끄럽지만 허물이 없다. 즉 두 괘는 올바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여 부끄러운 상황일지라도 지나치게 강한 곳[삼효]에 부드러운 음이 자리고, 매우 약한 곳[상효]에 강한 양이 자리하여 허물이 없는 상황이다. 비괘(賁卦) 육오와 곤괘(困卦) 구사 또한 효의 자리가 바르지 않아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처해있는 상황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마침내 길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지 않는 조건이라도 자신의 처한 기미를 살펴 처리하면 허물이 없거나 좋은 결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괘효의 상황 자체가 바로 부끄러운 경우인데, 몽괘(蒙卦), 동인괘(同人卦), 손괘(巽卦), 미제괘(未濟卦)가 있다.

몽괘 육사: 몽매함에 곤란하니 부끄러울 것이다.[蒙卦 六四: 困蒙, 吝.]

동인괘 육이: 동족끼리만 함께 하니 부끄러울 것이다.[同人卦 六二: 同人于宗, 吝.]

손괘 구삼: 자주 공손하니 부끄럽다.[巽卦 九三: 頻巽, 吝.]

미제괘 초육: 그 꼬리를 적셨으니 부끄러울 것이다.[未濟 初六: 濡其尾, 吝.]

위 괘의 효사는 괘의 특성상 그 효 자체가 부끄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몽괘(蒙卦) 구사는 몽매함을 계발시켜줄 양(陽)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응함이 없어 몽매함에 곤궁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상황이다. 동인괘(同人卦) 육이는 음효로 음의 자리에 거처하여 바른 자리이고 하괘의 중덕을 가진 유순중정한 효이지만, 오직 응효(應爻)인 구오만에 치우쳐 다른 효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상황이다. 손괘(巽卦) 구삼은 중이 아니면서 지나치게 강해 거만하고 불손한 성질을 지녔는데, 억지로 자주 겸손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상황이다. 미제괘(未濟卦) 초육은 올바른 자리가 아니고 음유로 재덕이 부족한데, 신중히 처신하지 못하고 구사에 의지하여 함부로 행동하니 부끄러운 상이다. 이상에 볼 때 부끄러움은 부정위(不正位), 부중정(不中正), 불응(不應), 불비(不比), 과강(過剛) 등과 같이 효의 자리, 효와 효의 상호관계, 효의 자체적인 특성에 따라 생기는 감정이다. 부끄러움은 기본적으로 『역경』을 점역(占易)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에게 처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출현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은 『역경』을 학역(學易)의 측면에서 이해할 때 해결될 수 있다. 즉 점을 쳤을 때 생기는 부끄러운 상황은 부끄러운 도덕 감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늘 부끄러움의 상황에

쳐하게 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부끄러운 기미(幾微)를 살펴 바르게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결론

부끄러움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 최근 부끄러움에 대한 논의는 ‘감정철학’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역경』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역경』에 나타나는 린(吝)자의 쓰임을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부끄러움이 인간의 삶의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역경』의 린(吝)의 쓰임을 살펴보면, 린(吝)자는 효사에서만 모두 20번 등장하는데 상경에서 10번과 하경에서 10번 나타난다. 린(吝)자는 초효부터 상효까지 모두 보이는데, 초효 3번, 이효 1번, 삼효 8번, 사효 4번, 오효 1번 상효 3번이다. 이것을 5가지 의미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면 부끄럽다[往吝]”는 것으로 표현되는 린(吝)으로, 준괘(屯卦), 몽괘(蒙卦), 고괘(蠱卦), 함괘(咸卦)가 있다. 둘째, ‘바르더라도 부끄럽다[貞吝]’는 것으로 드러나는 린(吝)인데, 태괘(泰卦), 항괘(恒卦), 진괘(晉卦), 해괘(解卦)가 있다. 셋째, 앞의 전제 조건이 길하거나 허물이 없는데도 결국에는 부끄러운 경우인데, 관괘(觀卦), 대과괘(大過卦), 가인괘(家人卦), 취괘(萃卦)가 있다. 넷째, 앞의 상황이 좋지 않아 부끄럽지만 결국 허물이 없거나 길한 경우인데, 서합괘(噬嗑卦), 비괘(賁卦), 구괘(姤卦), 곤괘(困卦)가 있다. 다섯째는 괘효의 상

황 자체가 바로 부끄러운 경우인데, 몽괘(蒙卦), 동인괘(同人卦), 손괘(巽卦), 미제괘(未濟卦)가 있다.

『역경』에서 름(吝)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효의 해석방법론과 연관성을 갖는다. 괘의 6효는 각 효의 자리와 효끼리의 상호관계에 따라 해석되는 음양의 상징체계이다. 각 효는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즉 부끄러움은 올바르지 않은 자리[不正位]에 처할 경우, 중정(中正)이 아닐 경우, 서로 응하지 않을 경우[不應], 지나치게 강한 겨우(過剛), 친하지 못한 경우[不比] 등과 같이 효의 자리, 효와 효의 상호관계, 효의 자체적인 특성에 따라 생기는 감정이다.

부끄러움은 『역경』을 점역(占易)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에게 처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부끄러움은 자신에게 처한 조건이 좋거나 나쁜 것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바르게 행동하더라도 부끄러운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감정으로 인간의 삶의 표현이다. 부정적인 상황은 『역경』을 학역(學易)의 측면에서 이해할 때 부끄러운 도덕 감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즉 인간의 삶은 늘 부끄러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의 기미를 살펴 바르게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선택이란 그쳐야 할 상황이면 그치고, 나아가야 할 때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알고 대처하는 방법이다. 『역경』은 여러 판단사를 통해 사람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 상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상황은 자신의 올바

른 판단과 반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역경』의 부끄러움[吝]은 흉(凶)이나 회(悔)의 상황과 연관되어 나오는 경우가 없다. 부끄러움은 주로 길(吉)과 무구(无咎)의 관계 속에서 나타는 감정이다. 모든 상황이나 사태는 부끄러움의 대상이며, 결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감정을 드러내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끄러움[吝]의 감정은 어떤 사태에 대한 잘못[凶]을 반성하는 뉘우침[悔]으로 발전하여 허물이 없는 상태[无咎]로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좋은 방향[吉]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이란 잘못을 인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감정이다. 이것은 흉(凶)→ 린(吝)→ 회(悔)→ 무구(无咎)→ 길(吉)로 나아가는 구조이다.²⁸⁾ 그러므로 부끄러움과 뉘우침은 송대 이후 많은 역학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회는 길함으로 가고 린은 흉함으로 간다’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원인이 되어 뉘우침의 결과를 낳는 관계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감정은 한 개인의 부끄러운

28) 주희는 길흉회린의 순환관계를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는 “길흉회린에서, 길함이 지나치면 뉘우치게 되고, 이미 뉘우치면 반드시 부끄럽게 되고, 부끄러우면 또 다시 길하게 된다.吉凶悔吝, 吉過則悔, 既悔必吝, 吝又復吉.”고 했다. 朱熹, 『朱子語類』, 권67, 『朱子全書』 제16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2241쪽. 또 그는 “길흉회린 네 가지는 바로 강유변화와 서로 같다. 네 가지는 서로 순환하고 두루 반복하여 다시 시작한다. 뉘우치면 바로 길하게 되고, 길하면 바로 부끄럽게 되고, 부끄러우면 바로 흉하게 되고, 흉하면 바로 뉘우치게 된다.吉凶悔吝四者, 正如剛柔變化相似. 四者循環, 周而復始, 悔了便吉, 吉了便吝, 吝了便凶, 凶了便悔.”고 했다. 朱熹, 『朱子語類』, 권74, 『朱子全書』 제16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2509쪽.

감정을 넘어 현대 사회의 부끄러움으로 확장될 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이끌어 낼 것이다.

<참고문헌>

『논어』, 『맹자』, 『주역』, 『상서』

高 亨 著, 『周易古經今注』, 香港, 中華書局, 1980.

高 亨 주해, 김상섭 옮김, 『고형의 주역』, 서울, 예문서원, 1995.

王弼 注, 孔穎達 疏, 『周易正義』,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다산 정약용, 방인·장정옥 옮김, 『역주주역사전』 1책, 서울, 소명출판, 2007.

등구백 지음, 황준연 엮음, 『역주백서주역교석』, 서울, 학고방, 2015.
來知德, 『易經來註圖解』, 高雄, 復文圖書出版社, 1998.

박찬영, 「부끄러움에 대하여」, 『教育論叢』 vol 49, 公州教育大學校, 2012.

백은기, 「『이천역전』에 나타난 貞에 관하여」, 『철학』 Vol 47, 한국철학회, 1996.

——, 「주자의 『주역』에 나타난 正에 관하여」, 『범한철학』 Vol 34, 범한철학회, 2004.

——, 「『주역』에 나타난 원형리정(元亨利貞)에 관하여」, 『동양철학』 Vol 39, 한국동양철학회, 2013.

蘇 軾 撰, 『東坡易傳』, 『문연각사고전서』 vol 9, 臺灣, 商務印書館, 1988.

吳 澄 撰, 『易纂言』, 『문연각사고전서』 vol 22, 臺灣, 商務印書館, 1988.

王夫之, 『周易外傳』, 『船山全書』 1책, 長沙, 嶽麓書院, 1988.

王又樸 撰, 『易翼述信』, 『문연각사고전서』 vol 50, 臺灣, 商務印書館,

1988.

王 偉, 「淺析“吝”字在《易經》爻辭中的釋義」, 聊城大學古籍整理研究所, 2004.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X VI,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5.

이 선, 「부끄러움의 도덕적 기능」, 『哲學論叢』 vol 55, 새한철학회, 2009.

李鼎祚 撰, 『周易集解』, 『문연각사고전서』 vol 7, 臺灣, 商務印書館, 1988.

張 栻 撰, 『南軒易說』, 『문연각사고전서』 vol 13, 臺灣, 商務印書館, 1988.

田小中, 「‘以往吝’ 衍文考」, 重慶, 重慶文理學院, 2006.

정용환, 「맹자의 도덕 감정론에서 부끄러움의 의미」, 『哲學論叢』 vol 66, 새한철학회, 2011.

程顥·程頤 著, 『二程集』 上, 北京, 中華書局, 2014.

조정옥, 「셀러의 부끄러움 이론을 통해 본 한국인의 수줍음」,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19, 한국현상학회, 1996.

朱 熹 撰, 『朱子語類』, 『朱子全書』 제16책,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 『주역본의』, 『朱子全書』 제1책,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蔡 清 撰, 『易經蒙引』, 『문연각사고전서』 vol 29, 臺灣, 商務印書館, 1988.

최영찬·최남규·황갑연·박진용 지음, 『동양철학과 문자학』, 서울, 아카넷, 2003.

許慎 撰, 段玉載 注, 『說文解字』, 北京, 中國書店, 2010.

胡光庭, 「從《周易》“見吝”原始漢語的被動助動詞“見”」, 長沙, 湖南師

範大學院, 2009.

黃壽祺·張善文 撰, 『周易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中文摘要

試析《易經》之“吝”

曹芋珍

本論文的主要目的在於系統地分類和研究“吝”字在《易經》中的含義，並以此揭示“羞恥心”在人的生活結構中所表現出來的意義。“吝”字在《易經》中共出現20次，通常可解釋為‘羞恥心’。但是根據卦象中爻位，爻與爻的相互關係，爻的自身特殊性或特殊情況有5種不同含義。在《易經》中，“吝”的情感總是在人處於消極狀態時出現。但是如果從學易的層面理解，消極的狀態也可以通過“吝”這一道德情感得以化解。即“吝”是所有的人不管身處順境還是逆境都具有的情感。但是重在人是否體會羞恥之機微，做出正確選擇並將其付諸於實踐。

另外，“吝”在《易經》中主要是“吉”與“无咎”的關係中產生的情感。所有的狀態或者事態都是“吝”的對象，並非消極的情感。“吝”的情感可發展為對某種“凶”態的反省[悔]，再將消極的狀態轉變為无咎的狀態，並最終化為吉態。可將此過程簡單描述為“凶”→“吝”→“悔”→“无咎”→“吉”。為取得好的結果，“吝”的情感能起到至關重要的作用。如果“吝”的情感能夠超越個人而擴張為社會的情感，人與人相互疏通的空間就會被打開。

關鍵詞：吝，《易經》，羞恥，情感，吉，无咎。